

미술관·박물관서 '예술방학' 즐기세요

신나는 겨울방학,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 프로그램이 없을까.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방학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수강생을 맞는다.

이번 겨울 강좌는 22개월 이상 유아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엄마랑 나랑'과 5세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어린이 교육'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성인교육'으로 나뉘진다.

내년 1월5~9일 열리는 '엄마랑 나랑'은 부모가 수강생이자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아끼자기한 미술 놀이를 하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엄마와 처음 만나는 미술놀이'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시립미술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진은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체험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색의 비누를 만들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광주시립미술관 아이와 부모 함께 하는 프로그램 '풍성'

국립광주박물관 '... 즐거운 박물관' 이론 배우고 체험도

(1월8일·이하 내년 1월)는 하바 교구를 활용해 엄마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26개월~5세 어린이가 참여하는 '창의미술테마놀이 퍼포먼스'(5일)는 테마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다양한 퍼포먼스 놀이를 하며 미술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또 ▲노래로 부르는 재미있는 영어동화(6일) ▲이노블럭 놀이(6일) ▲그림책 여행(7일) ▲가베통합놀이(7일) ▲아마테우스클래스(8일) ▲하

바신체표현놀이(9일) 등도 마련된다. 이 밖에 예비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미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엄마를 위한 전문 베이비스쿨'(7일)도 함께 펼쳐진다. 이들 프로그램은 13명 정원이며, 수강료는 7만원.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교과서로 배우는 명화감상(5일) ▲창의 미술교실(8일) ▲이데아 스쿨(5일) ▲수학가베(5일) ▲알쏭달쏭, 재미있는 그림이야기(7일) ▲동화세상

(7일) ▲어린이 수채화(7일) ▲예쁜 손글씨(9일) 등 풍성하다. 15명 정원, 수강료 7만원.

또 성인들은 ▲수채화 교실(5, 9일) ▲생활 도예(6, 8일) ▲연필 인물화(8일) ▲도자기 세라믹 페인팅(7일) ▲한지공예(7일) 등의 강좌를 들으면 된다. 수강료 6만~8만원.

이 밖에 1월16일, 23일에는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나는 꼬마 만화가' 행사가 열린다. 이곳에서 열리는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전의

참여작가들이 어린이들에게 만화를 지도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화책을 만들어 보는 행사이다. 문의 062-510-0240.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도 매월 2, 4주 토요일에 이론과 체험이 결합된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문화 속 호랑이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웅장스러운 호랑이 문양이 들어간 온도계도 만들어 보는 '경인년 온도계' 등 프로그램이 알차다.

또 우리 문화 속 다양한 인장을 소개하고, 자신만의 인장을 만드는 '꾸~욱 우리인장'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문의 062-570-7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해에는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시립·무등·사직·산수·작은도서관 서예 한문 등 수강생 모집

광주시립도서관(관장 윤상선)은 '2010년도 제1기 독서문화강좌'를 개설, 오는 2010년 1월4일까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립도서관은 각 도서관별로 '서예교실' '한국화교실' 등 총 17개 과정을 개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과

정으로 운영한다.

무등도서관은 일반인 대상으로 '서예교실'과 '한국화교실', '책으로 여는 유쾌한 세상'을 운영하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한 '이야기교실'도 마련했다.

소외계층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방학특강 한문교실'도 열린다. 문의 062-613-7742.

사직도서관은 '구연동화', 'Fun-Fun English', '그림책속 이야기여행', '재미있는 그림인형극'등을 개설했다. 또 그림책과 함께하는 논술가

베(작은도서관에 찾아가서 운영)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독서나눔(광주여성장애인연대에 찾아가서 운영) 강좌도 운영한다. 문의 062-613-7782.

산수도서관은 '서예교실', '문인화교실', '여르신을 위한 한글교실', '민화교실', '요리와 함께 떠나는 동화나라', '곰자락 오감체험' 등 7개 강좌를 준비했다. 문의 062-613-7826.

도서관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강료는 무료(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다.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citylib.gwangju.kr) 참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깝게 놓친 영화들 한꺼번에...

광주극장 1~27일 '마지막 프로포즈'

'동파리' '도쿄 소나타' 등 21편 상영

2009년에 개봉된 작품 중 아깝게 놓친 영화, 광주에서는 개봉조차 되지 않아 볼 수 없었던 영화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해마다 '마지막 프로포즈'를 진행했던 광주극장이 새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2009 마지막 프로포즈'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모두 21편이다.

해의 상영작 중에는 2008년 칸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칸영화제 주목할 부문 심사위원상을 받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도쿄 소나타', 각본상 수상자인 '로니의 침묵', 노인들의 도발적인 사랑과 인생을 그린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우리도 사랑한다'가 상영된다.

또 '파니 핑크', '내 남자의 유통 기한'으로 유명한 도리스 피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에밀 쿠스투리차 감독 특유의 화려한 색깔과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약속해줘', 시한부 삶을 앞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음악영화 '원위크' 등을 만날 수 있다.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영화로는 최근 각종 설문 조사에서 '올해의 영화 5'에 들었던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양익준 감독의 '동파리', 고아성·문성근이 주연을 맡고 우니 르콩트가 감독으로 참여한 '여행자', 이민기·정유미 주연의 '오이시맨', 김소영 감독의 '나무 없는 산', 박지영 주연의 '바다쪽으로 한 뼘 더' 등이 눈길을 끈다.

자세한 시간표는 홈페이지(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작 뮤지컬 '정인' OST 음반 나왔다

'모두 다 내 잘못이죠' 등 11곡 담다

1월 3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공연

현재 창작 뮤지컬 '정인'을 공연중인 지역 극단 연인이 작품에 담긴 노래들을 모은 OST를 출반했다. 창작 뮤지컬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 여건에서 OST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 눈길을 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은애'의 김은숙 작가가 희곡을 쓴 '정인'은 2001년 대학로극장 초연 후 지금까지 2천회 이상 공연된 작품으로 광주에서도 정극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정인'은 아들의 답임으로 첫 대면을 가진 후 결혼에 이룬 이혼남 핵인과 정인의 사랑과 이별을 때론 유쾌하게, 때론 가슴 아프게 그린 작품이다.

이번에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한 '정인'의 음악 작업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배경희(남부대 음악학과 겸임교수)씨가 참여했다.



배는 가요 '바위섬'을 비롯해 창작 무용 '불꽃',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연극 '서안화차', '아버지' 등 다

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다. 이번 음반에 실린 노래는 '모두 다 내 잘못이죠' '청춘', '약속할게요' 등 모두 11곡.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랑을 엮어가는 모습을 담은 경쾌한 음악들이 눈길을 끌며 작품의 후반부에 배치된 '이별준비', '이별예감', '천일동안'도 인상적이다.

원광연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종필·정승희씨가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정인'은 내년 1월 3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문의 010-7624-17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암출신 최치언씨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수상작은 '언니들'

영암 출신 젊은 희곡작가 최치언(39·사진)씨가 '2009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언니들'.

'언니들'은 옥수수밭의 허수아비와 세 자매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죄의식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13일까지 서울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창작예찬' 시리즈에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으로 당선, 공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은 3인조 자해 공갈단을 등장시켜 5·18 광주민중항쟁을 재치있게 패러디한 블랙 코미디. 한편, '대한민국 연극대상'은 한국연극협회가 한국연극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대상의 영예는 극단 여행자의 연극 '페르킨트'가 안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경찰학원의 합격프로젝트) featuring a photo of a man in a uniform.

Advertisement for National Support (국비지원) and IT Job Training (중앙IT직업전문학교) with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Factory Sale (공장금액) for Nam-san-dan 9-bond, listing prices for various items and contact number 010-3617-8810.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농산물품질관리사) and Investment Consultant (펀드투자상담사) with contact number 361-8110.